
아산문화재단 본격 출범

[2008-07-20 오전 7:15:00]

아산의 문화보급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아산문화재단이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.

아산시는 지난 7월 10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(재)아산문화재단 창립 및 정관 심의·임원 선임과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등을 위한 발기인대회 겸 이사회를 가졌다.

아산문화재단은 아산의 문화·예술에 관한 우수한 형상화 기법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조직체를 구성해 지역문화를 선도하고, 새로운 문화·예술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일반 시민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이전부터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.

이는 지난해 4월 설립을 추진했다가 유보된 바 있으며 9월 의회의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면서 설립이 확정됐었다. 아산문화재단의 재원은 일단 시가 전액 출연한 2억원의 기본재산과 1억2천850만5천원의 보통재산으로 하고 있다.

<임원 현황>

▲이사장 : 강희복(시장)

▲이사 : 김준배(시의장), 남덕현(행정국장), 김시경(온양문화원장), 윤흥섭(예총지부장), 나성남(호서대 교수), 김병억(성신여대 교수), 정병웅(순천향대 교수), 우문곡(아산전통무용단장), 홍승욱(아산문인협회 회원), 신탣근(온양민속박물관 고문), 이길성(나사렛대 평생교육원 교수), 이인원(한국국악교육원장), 강대식(극단온양 대표), 윤한(인재유지컬 단장)

▲감사 : 김용배(아산시 감사담당관), 신흥철(온양신문 편집국장)